#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정치학

## : 총독부 기관지『경학원잡지』'지방보고'란의 열녀 기사를 중심으로

홍인숙*

차례

1. 머리말
2. '미풍'과 '폐풍' 사이, 열녀의 발견과 열녀서사 창작의 순환
3. 지방 유림의 불안과 '열녀'라는 전통의 호출
4. 내부 식민지로서의 여성의 몸- 착취와 학대의 시선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 기고란에 실린 열녀 재현의 양상과 식민지 지방 유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열녀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방보고'라는 기사란의 성격을 경학원 본원-지방 향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보고 기사란에서 열녀라는 여성 형상이 지방 유림들에게 발견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보고 란의 열녀 기사는 특정 시점에 경학원의 주요 인사가 '열녀'를 언급한 바로 다음 호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상호 유사한 기사들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열녀 서사가 지방보고 주체들 사이에서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거쳐 차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 유림과 본원의 주요 인사들은 열녀 기사의 발굴과 재창작을 상호 자극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는 지방보고 열녀 기사의 생산 주체인 식민지 시대 지방 유림들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총독부의 향교 재산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리권 박탈 및 향교 조직 약화 정책에 심각한 압박을 받았으며, 동시에 식민지 근대 지식인과의 경쟁 구도로 인해 종래의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지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 유림들에게 '유교의 도'는 총독부에 의해 관리되고 착취당하는 식민지민으로서의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열악해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였다.

결국 '지방보고' 란의 '열녀' 재현은 이러한 식민지 시대 지방 유림이 식민화되고 주변화된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재소환한 유교적 표상이다. 이들 기사에서 특히 여성의 몸과 노동이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학대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역시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생산층이었던 지방 유림들이 자신들의 식민성을 투사한 내부 식민지로 여성의 몸을 발견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핵심어 : 열녀, 식민지, 경학원, 『경학원잡지』, '지방보고', 유림, 향교**

## 1. 머리말

이 글은 일제 식민지 시대 지방 유림들의 열행 보고 기사를 중심으로 근대 식민지를 살아갔던 유림들에게 열녀라는 유교적 여성 표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공통 언어이자 문화였던 '유교'는 근대 지식인들에게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근대적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대상이었다.[1] 이 글에서는 근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열녀'라는 유교적 여성 형상의 재현이 자주 활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그러한 여성 재현의 언설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국면에서의 특징과 효과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나카무라 슌사쿠, 김선희 역, 『에도 유교와 근대의 지』, 선인, 2010, 91쪽.

원래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열녀 재현은 역사적인 국면마다 특정한 지배담론의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위한 기표로 활용되어 왔다. '열'의 판단 기준이 시대적 배경과 열녀 재현의 주체에 따라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규정되어 온 것은 그러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조선전기에 생산된 열녀전에서 열행의 기준이 '수절과 남편 상제례의 집행'이었던 것에 비해, 17세기 전란의 경험을 거친 직후 열의 판단 기준은 '죽음'으로 변경되었다. 18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대거 등장하는 유학자들의 열녀전은 고정된 서사 단락으로 열녀 재현의 전형성을 고착화하는 양상이 드러나며, 이 시기의 열행 기준은 전란 당시와 같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정절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을 따라죽는 '하종(下從), 순절(殉節)'이 일반화되었다. 계층적 차원에서 상층 벌열 가문에서는 남편을 따라죽는 열녀가 거의 없고 지방의 몰락 양반층에서 주로 순절 열녀가 배출되었다는 점, 지역적으로 서울경기보다 영남 등 지방에서 따라죽는 열녀가 많이 배출되고 입전된 경우도 많았다는 점 역시 열녀라는 여성 재현이 특정한 남성 지배집단의 시각과 관점을 매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2)]

근대 조선에서도 '열녀'의 여성 형상은 특정한 국면마다 재소환되었다. 개화기 유교 지식인들 중에서 특히 민족주의 유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암 유인석에게 열녀라는 여성상은 외세의 침탈이 박두해오는 '어둠천지 짐승의 세계' 같은 현실 속에서 가부장의 공백을 메꾸며 나라를 존중받게 하는 존재로 의미화되었다. 근대 민족주의 유림에게 열녀는 중국도 지키지 못한 문물과 정신을 조선이 보존하고 있다는 민족적 우월성의 증거이자 유교 지식인으로서의 훼손되고 상처 입은 자기정체성을 복원해

2) 조선시대 열녀전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의식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63-183쪽; 홍인숙, 「17세기 열녀전 연구」, 『한국고전연구』 7, 2001, 한국고전연구학회, 95-117쪽; 홍인숙, 「열녀 담론의 새로운 독해- 성과 계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85-118쪽.

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간재 전우와 같은 보수 유림은 여성의 정조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강박적으로 강조하였다. '옛날의 정녀(貞女)들이 난을 당하면 옷을 꿰매 입은 이유를 생각하라'거나 '단도가 없다면 중국의 열녀 대씨(戴氏)처럼 날카로운 가위로 찔러죽는 것도 괜찮다'는 전우의 훈계는 보수 유림에게 여성은 외세에 침탈되어서는 안 될 영토로서의 몸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3]

그렇다면 일제에 점령당한 이후, 민족주의 유림이나 보수 유림과 또다른 길을 갔던 식민지 유림의 열녀 재현은 어떤 의미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를 집약적으로 읽어보게 해주는 자료는 총독부가 조선의 유림 세력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발간한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4]이다. 경학원은 조선왕조의 성현 제사와 관료 양성의 중심이었던 성균관을 폐지하고 유교 개혁을 내세워 설립한 기관으로, 일제는 성균관을 계승한 것 같은 착오를 유발하는 '대제학, 부제학, 사성' 등의 관직명, 유교 성현인 공자를 제사하는 '석전제(釋奠祭)' 강화와 같은 상징과 의례를 이용해 유림들을 포섭하고 관리하고자 했다. 『경학원잡지』는 바로 이러한 총독부의 유림 통제 정책을 가시화한 매체로, 잡지 발간의 가장 큰 목표는 유림을 조직화하여 조선 사회에서 일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5]

---

3) 유인석과 전우의 열녀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187-211쪽; 김남이,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 대동한문학회, 2003, 291-318쪽; 김경미는 유인석, 전우, 황현, 곽종석 등 민족주의 유림들이 남긴 개화기 열녀전에서 열행이 민족적 우위와 우월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김남이는 특히 유인석의 열녀전에서 열행이 중국도 지키지 못한 문물과 정신을 조선이 보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열녀를 '나라의 빛(國之光)'이자 '나라를 존중받게 하고 도리를 붙드는(尊國扶道)' 거점으로 형상화했다고 분석했다.

4) 『경학원잡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총 48호가 발간되었다. 연 4회 발행이 원칙이었지만 192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1~2회 간행되었다.

5) 경학원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의 연구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87-122쪽; 류미나, 「식민지 권력에의 협력과 좌절-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157-191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은 원래의 제목 자체가 '강사(講士)의 지방보고(地方報告)'였다.[6] 대제학을 필두로 한 '본원-경학원'에서는 각 도마다 '강사'를 두어 '지방-향교 · 문묘'의 향사에 파견했다. 각 도의 군 단위에 주로 소재한 향교 · 문묘에 파견된 이들 경학원 강사는 유교 경전 강연과 함께 그 지역에 총독부의 정책과 훈령을 시달하는 한편 해당 향교에서 열린 석전제 참석 인원의 규모와 개황을 정리, 수합하여 다시 상부에 보고하였다. 경학원 '임명직'인 각 도 강사의 이러한 '파견과 시찰'은 지방 유림들에게 경학원의 존재를 위계적으로 파악하게 했고, 점차 지방의 향교 · 문묘직원은 자기 지방의 향교 소식과 석전제 상황, 각종 미담 등을 자발적으로 경학원에 '보고'하기 시작한다. 즉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은 식민지 시대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향촌의 유교 지식인들이 총독부 권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력했던 흔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7]

---

쪽; _____,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제17집 제1호, 교육사학회, 2007, 53-77쪽; _____, 「일본 '국민도덕론'의 유입과 재생산- 1910~1920년대 경학원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2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63-85쪽; _____, 「19세기말~20세기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집, 동양사학회, 2010, 1-61쪽; 정욱재, 「1910~1920년대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 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7, 221-248쪽; _____, 「한말 일제하 유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22쪽; 정세현, 「『經學院雜誌』를 통해 본 呂圭亨의 현실 대응 양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1-71쪽; 김미수, 「일제강점기 『經學院雜誌』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127-158쪽.

6) 『經學院雜誌』 매호의 마지막 장 판권지인 「經學院雜誌編纂에關ᄒᆞᆫ要項」에는 '雜誌編纂槩目'이라는 제목으로 『경학원잡지』의 기본 목차를 소개하고 있다. '雜誌編纂槩目 1.經學에關ᄒᆞᆫ論說 1.經學講演의筆記 1.講士及其他의寄稿 1.內地大家의論說 1.新聞及書籍의飜譯 1.新政趣旨의普及 1.必要ᄒᆞᆫ法令 1.講士의地方報告 1.詩文'

7)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을 통해 지역 향교의 협력 관계를 가장 먼저 주목한 연구는 류미나의 논문이다. 류미나(2005), 앞의 논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학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의 문묘는 식민지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한다. 1910년대에는 경학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문묘가 전체 240개 군 중 91개군, 37.9%였으나 20년대에는 152개 군, 63.3%, 30년대 이후에는 205개 군, 85.4%에 달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란에 실린 열녀 기사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학원잡지』의 열녀 기사는 총 123건으로, 이 중 10편은 '열녀비'의 비문, 나머지 113건은 '지방보고'에 실려 있는 각 지역 열녀에 대한 소개 및 보고 기사이다.[8] 대체로 조선후기 열녀전의 전형적인 서사단락인 '가문-품행-남편 간병 · 상장례-수절 · 순절-찬(讚)'의 형태로 구성된 이들 열녀 기사는 '지방보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춘추 석전제 거행' 보고, '향교 및 문묘 수리' 보고 다음으로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9] '지방보고'의 열녀 기사는 1호(1911)부

8) 『경학원잡지』에 실린 열녀 기사의 전반적인 자료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홍인숙, 「일제 식민지 시대 열녀 담론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64집, 한국한문학회, 2016, 473-506쪽에서는 열녀 기사의 총수를 110편으로 집계했는데 30, 31집을 확인한 결과 13편의 열녀 기사가 더 발견되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37, 40, 42, 45호를 합치면 130편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석전제 보고, 문묘 보수 기사 외에 '지방보고'에서 발견되는 효행 기사의 규모 및 양상 역시 열녀 기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파악될 필요가 있다. '지방보고'란에서 열녀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24년을 기점으로 전 5개 호(17,19, 22~24호), 후 7개 호(25~30호, 32호)의 지방보고 기사의 소재별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rowspan="6">17,19,22~24호<br>(1918~1923년)<br>5개 호<br>지방보고 기사<br>총계 97개</td><td>17호 지방보고 총 13개 중 열행0, 효행0</td><td>석전<br>기사</td><td>열행<br>기사</td><td>효행기사</td></tr>
<tr><td>19호 지방보고 총 26개 중 열행1, 효행0</td><td rowspan="5">93개<br>(96%)</td><td rowspan="5">4개<br>(4.1%)</td><td rowspan="5">0개<br>(0%)</td></tr>
<tr><td>22호 지방보고 총 19개 중 열행1, 효행0</td></tr>
<tr><td>23호 지방보고 총 25개 중 열행1, 효행0</td></tr>
<tr><td>24호 지방보고 총 14개 중 열행1, 효행0</td></tr>
<tr><td rowspan="7">25~30호, 32호<br>(1924~1930년)<br>7개 호<br>지방보고 기사<br>총계 260개</td><td>25호 지방보고 총 16개 중 열행4, 효행3</td><td>석전</td><td>열녀</td><td>효행</td></tr>
<tr><td>26호 지방보고 총 46개 중 열행18, 효행9</td><td rowspan="6">162개<br>(63%)</td><td rowspan="6">61개<br>(23%)</td><td rowspan="6">37개<br>(11%)</td></tr>
<tr><td>27호 지방보고 총 40개 중 열행13, 효행8</td></tr>
<tr><td>28호 지방보고 총 44개 중 열행6, 효행6</td></tr>
<tr><td>29호 지방보고 총 31개 중 열행8, 효행2</td></tr>
<tr><td>30호 지방보고 총 46개 중 열행7, 효행6</td></tr>
<tr><td>32호 지방보고 총 37개 중 열행5, 효행4</td></tr>
</table>

위 통계를 참고해 보면, 효자 기사는 열녀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한 호부터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 수는 열녀 기사보다 다소 적다. 열녀 기사와 비교했을 때 효자 기사가 길이도 평균적으로 짧고 인물과 사건의 구체성이 다소 약하게 그려진 점을 참고할 때, 지방 유림들에게 보다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유교적 표상은 열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열행 기사와 효행 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전체적인 비율 비교 등을 통해 지방보고 기사 구성의 입체성을 보완할 것을 지적

터 9호(1915)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11호(1916.6)부터 25호(1924.12)까지 드문드문 한두 편씩 발견되다가[10] 26호(1925.12), 27호(1926.12)에 각각 18편, 15편으로 최대 게재분을 기록한다. 이후 28호(1927.12)부터 39호(1935.10)까지 매호 4~8편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4개 호를 건너뛴 후 다시 44호(1939.10)부터 48호(1944.4)까지 매호 2~4편이 실렸다. 시대별로 보면 열녀 보고는 무단통치기인 1910년대 중후반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꾸준히 발견되고, 중일전쟁(1937)을 전후한 시기에는 잠시 나타나지 않다가 40년대에 다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 기고란을 통해 등장한 열녀 재현이 어떤 양상과 특징을 가지는지, 그러한 열녀 재현이 식민지 지방 유림의 존재와 관련지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것은 식민지 시대 경학원 본원과 지방 향교 유림들과의 관계, 『경학원잡지』라는 매체와 '지방보고'라는 기고란의 성격, 지방 향교의 역할과 기능 및 향촌 유교 지식인의 위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지방 유림에게 주요한 유교 표상으로 부각된 열녀라는 여성 형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 2. '미풍'과 '폐풍' 사이, 열녀의 발견과 열녀서사 창작의 순환

> 조선은 원래 효도와 정절을 고무장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속[美風]이 있으니 효자가 있으면 이를 마을 문에 표창하고 열부가 있으면 그를 위해

---

한 정일영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며, 『경학원잡지』 '지방보고'의 전체 맥락 속에서의 열행, 효행 기사의 특징 및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는 별도의 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0) 11호에서 25호까지의 열녀 기사 수는 다음과 같다. 11호(1916.6) 1편, 14호(1917.7) 2편, 18호(1918.9) 2편, 19호(1918.12) 1편, 22호(1922.3) 1편, 23호(1922.12) 1편, 24호(1923.12) 2편, 25호(1924.12) 4편.

> 그 마을의 세금을 면해주는 등 상하가 이를 추천하고 장려하며 경모한다. 이러한 덕행은 원래 유교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장래에도 더더욱 그 미풍을 유지하고 장려할 것은 논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상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어 혹은 부모의 질병을 낫게 하고 병든 남편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를 훼상하여 그 피를 마시게 하며, 혹은 음식을 끊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이는 부모자식, 부부의 정리로 보아 원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문명한 오늘날에 죽음과 같은 상궤를 벗어난 행위는 인도의 대의에서 관찰하여 묵과하기 어려운 곡해된 폐풍(弊風)이다. 도덕행위로 일반을 규율할 만한 미풍이라 말할 수는 없다.[11]

충남 강사 성낙현이 도청에서 연설한 강연의 연설문인 위의 '보통강설(普通講說)'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열'이라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다소 애매한 태도이다. 기본적으로 열행은 '유교의 본뜻(本旨)'에 맞는 '아름다운 풍속[美風]'이지만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신체 훼상'이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문명한 오늘날 대의'에 맞지 않는 '폐풍(弊風)'이라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열'의 실천이란 '유교의 본지에 부합하는 미풍'과 문명한 시대에 일반에 권할 수 없는 '곡해된 폐풍'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 글의 효과가 실제 '열'의 정도를 합리적이고 이

---

11) '朝鮮은 由來 孝道와 貞節을 鼓舞奬勵ᄒᆞᄂᆞᆫ 故로 美風이 有ᄒᆞ니 孝子가 有ᄒᆞ면 此를 里門에 表彰ᄒᆞ고 烈婦가 有ᄒᆞ면 爲ᄒᆞ야 一鄕의 貢稅를 免ᄒᆞᄂᆞᆫ 等 상하가 此를 推奬敬慕ᄒᆞᆷ 是等德行은 元來 儒敎의 本旨에 協ᄒᆞᄂᆞᆫ 所以로 將來라도 益益其美風을 維持奬勵ᄒᆞᆯ 것은 論을 竢치 아니ᄒᆞᆯ 바이라 然이나 此가 實行의 矯激이 되야 或은 父母의 疾病을 瘉ᄒᆞ고 病夫의 苦痛을 救키 爲ᄒᆞ야 自己의 身體를 毁傷ᄒᆞ야 其血液을 啜케ᄒᆞᆷ과 如ᄒᆞ며 或은 飮食을 絶ᄒᆞ야 其死에 殉케ᄒᆞᆷ과 如ᄒᆞᆫ 親子夫妻의 情誼로 素히 其志ᄂᆞᆫ 諒ᄒᆞᆯ만ᄒᆞᆫ 것이 아인 것은 아니나 文明의 今日에 死와 如한 常軌를 逸ᄒᆞᄂᆞᆫ 行爲ᄂᆞᆫ 人道의 大義에셔 觀察ᄒᆞ야 默過키 難ᄒᆞᆫ 弊風曲解인지라 道德行爲로 一般을 律ᄒᆞᆯ만ᄒᆞᆫ 美行이라 謂키 不可ᄒᆞᆷ', 「普通講說(道廳所付)」, 『경학원잡지』 10호, 1916.3.25, 79쪽.

성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사의 진짜 효과는 경학원 '본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연문의 내용이 각 지방의 유림들에게 '열녀'라는 전통적 형상에 대한 기억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원래 각 도별로 1인씩 배치된 '강사'는 도 전체 유림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경학원 본원의 정책을 전달, 대변하는 자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즉 수십 개 군의 향교를 직접 방문하여 석전제 상황 및 유림 동향을 시찰하는 감시자이자 본원의 정책 전달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강사의 강연은 향교 중심의 지방 유림들에게 본원의 시책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참조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강사 성낙현의 강연이 표면상으로는 폐풍을 지적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상 방점은 '유교의 근본 취지에 맞는, 장려할 만한 미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에 찍히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는 지방 유림들에게 타 지방과 변별되는 자기 지방의 우월성을 본원에 '보고할 수 있는 지표'이자 유교 도덕의 '실천적인 형상'으로서의 '열녀'의 표상을 자각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12]

실제 이 강연문이 실린 1916년 3월 25일자 『경학원잡지』 10호 이전까지 열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0호 '본원기사'에 실린 이 강연문의 전재 이후, 1호에서 9호까지의 『경학원잡지』 기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열녀'에 대한 지방에서의 보고가 '지방보고'란에 접수되기 시작한다. 바로 삼 개월 뒤에 발행된 11호(1916.6)에는 '전남 당진군'의 문묘직원 이상묵과 지역 선비들의 대표 김관현이 해당 군의 '강진수 자부 최씨의 효열탁행(孝烈卓行)을 보고하는 래첩(來牒)'[13]((①)

12) 성낙현의 10호(1916.3) 강연문에서 '효열'을 언급한 이후 열녀 기사는 11호(1916.6)부터 발견되는 데 비해, 효자 기사는 그로부터 무려 8년 뒤인 25호(1924.12)부터 발견된다. 유림들에게 '효열'의 개념이 '효자와 열녀'라는 분리된 도덕 주체로서보다는 효행을 겸비한 열녀, 즉 '(효)열녀'의 개념으로 우선 연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열녀 담론에서 '열'이 '효열'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시 상층 남성 지식인들의 필요와 결부되어 있음은 다음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강성숙, 「19세기 효열 담론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55-95쪽.

13) '本年 三月分에 全羅南道 唐津郡 文廟直員 李敏默 及多士 金琯鉉等의 來牒을 據ᄒᆞ

이 실리게 된다. 희생적 간병, 재가 권유의 단호한 거부, 시부의 악취 나는 종기를 빨아 낫게 하는 열행이 보고의 주요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1년 뒤인 14호(1917.7)에 실린 '황해도 옹진군'의 문묘 직원 윤석형과 유림 문하석이 보내온 '조형해의 자부 이씨의 효열탁행 보고'[14](②)이다. ①과 ②는 지역과 시기, 보고한 유림과 열행 당사자까지 완전히 다르지만, 고유명사와 몇몇 단어를 빼고는 그 내용이 표현까지 거의 동일하다. 두 본문의 내용 중에서 똑같은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뢰오니 ①고금 천하에 혹 효부도 있고 열부도 있으나 효와 열의 두 도리를 겸전한 자는 우리 부 금당리 강진수의 자부 낭주 최씨이도다. (②우리 군 용천면 마항리 조형해의 자부 한산 이씨이도다.) 최씨가 (이씨가) 나이가 되자 강씨(조씨) 문중에 시집갔는데 집에는 오직 네 벽뿐이었으니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 먹을 것 없는 가난의 근심을 없게 했다. 그 남편 강응하는 주경야독하는 시골의 선한 선비였는데 (조재언은 힘써 농사 지으며 부모를 모시는 시골의 순실한 사람으로 혼인 후 일 년이 못 되어) 불행히 병에 걸려 위독함이 이어져 의원에게 약을 구하고 정성과 힘을 다했으나 결국 구하지 못했다. 최씨는 우러러 부르짖고 땅을 치며 문득 기절한 것이(기절했다 소생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상장례의 범절은 비록 집안에 돈이 없었지만 예를 따라 행했으니 향리에서 슬퍼하며 도와준 자가 여럿이었다. 매번 채소, 과일, 어육, 제철 먹을 것이 생기면 반드시 산소에 제사를 지내고 슬픔을 다하고 나서야 가져왔다. 늘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니, 따라죽지 않은 것은 다만 시부모가 살아계신데 받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삼년상이 끝나자 친정부모가 자식 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가엾게 여겨 뜻을 빼앗으려 사람을 시켜 뜻을 떠보았으나 최씨는 (이씨는) 칼을 품고 혼자 잘 때 그것을

---

니 該郡 金塘里 姜珍秀의 子婦崔氏의 孝烈卓行이 足히 爲人模楷ᄒᆞ고 使人感服인 바 其來牒이 如左ᄒᆞ더라', 『경학원잡지』 11호, 1916.6. 80-81쪽.

14) '四月分에 甕津郡 文廟直院 尹錫衡 儒林 文夏錫 等의 報告를 接ᄒᆞ니 同郡 趙亨楷의 子婦 李氏의 孝烈卓行이 令人感動인 바 其報告가 如左홈', 『경학원잡지』 14호, 1917.7 75-76쪽.

보여주며 '다른 뜻은 없다'고 하니 부모가 두려워하며 다시 강제하지 못했다. 이는 비록 위나라 세자의 처 공강에게도 멀리 뒤지지 않는 행실이다. (공강에 비해도 더할 수 없는 행실이다.)15)

자구까지 거의 일치하는 위 내용은 기사의 전반부, 남편에 대한 '열행'의 내용인데, 기사의 후반부인 시부모에게 한 '효행' 서사 부분은 약간 다르게 전개된다. ①은 시부가 실명한 후 울화병으로 난 종기의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피했으나 열부가 종기를 직접 빨아 낫게 했다는 것이며, ②는 실명한 시모를 열부가 품삯일을 해 봉양하며 그 뜻을 어기지 않았다는 내용이다.16) 그럼에도 주목되는 것은 약간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는 듯하던 ①과 ②가 시부모의 '실명(失明)'이라는 동일한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실명한 시부모를 극진히 모신 행실에 대한 평가의 표현 역시 공히 '상분(嘗糞)보다 열 배는 어렵다'는 말을 쓰고 있어, 결국 거의

15) ① 敬啓者, 古今天下, 或有孝婦焉, 或有烈婦焉, 以孝以烈, 兩全其道者, 其惟本部金塘里, 姜珍秀之子婦朗州崔氏乎, 崔氏年纔踰笄, 而歸于姜門, 家道四壁, 而夙夜靡懈, 了無食貧之憂, 其夫姜應夏, 晝耕夜讀, 亦一鄕之善士也. 不幸遘疾, 沉綿危殆, 延醫求藥之方, 竭盡誠力, 而竟至不救, 叫天叩地, 頓絶方甦者 屢矣, 送終之節, 稱家有無, 鄕里哀而助之者亦多, 每有菜果魚肉, 時食之物, 則必行掃墳之禮, 盡哀而還, 嘗曰未亡之人, 不能下從者, 只爲舅姑在堂, 供養無人之故也. 三年旣闋, 父母憐其無子而早寡也, 欲奪其志, 使人諷之, 於是李氏懷刃, 獨寢示之, 而靡他之意, 父母懼而不復强之, 是則雖衛世子妻共姜, 無以遠邁也. ② 古今天下, 或有孝婦焉, 或有烈婦焉, 以孝以烈, 兩全其道者, 其惟本郡龍泉面馬項里, 趙亨楷之子婦 韓山李氏乎, 李氏年纔踰笄, 歸于趙門, 家道四壁, 而夙夜靡懈, 了無食貧之憂, 其夫趙載彦, 勤力治農, 善養其親, 亦一鄕純實之人也, 成冠之後, 未過一年, 不幸遘疾, 沉綿濱危, 延醫求藥之方, 竭盡其誠力, 而竟至不救, 叫天叩地, 氣絶更生者 屢矣, 送終之節, 稱家有無, 遵禮而行, 隣里哀而助之者亦多, 每有菜果魚肉, 時食之物, 則必行掃墳之禮, 盡哀而還, 嘗曰未亡之人, 不能下從者, 只爲舅姑在堂, 供養無人之故也. 三年旣闋, 父母憐其無子而早寡也, 欲奪其志, 使人諷之, 於是李氏懷刃, 獨寢示之, 而靡他之意, 父母懼而不復强之, 是則雖衛之共姜亦莫能過也. (동일 부분 밑줄)

16) ① 其舅珍秀失明之後, 鬱火生疾, 左手生腫, 臭腐所觸, 人皆掩鼻, 而崔氏獨侍側不離, 躬自吮之, 積久瘡根歲餘乃瘳, 比之嘗糞十倍, 其難足矣. ② 其舅早逝, 具姑尙在, 而年今七十有四矣, 中間喪明之後, 兩目失精, …… 比之於嘗糞懷橘十倍, 其難矣, (유사 부분 밑줄)

똑같은 이야기를 읽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10호의 '보통강설(普通講說)' 이후 『경학원잡지』에 실린 120여 편 열녀 기사의 맨 앞, 11호와 14호에 위치한 이 두 기사는 '지방보고'란의 열녀 행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 보고'라기보다는 모방과 짜깁기의 방식으로 구성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이 두 기사는 『경학원잡지』의 열녀 언급 강연문을 통해 '열녀'라는 전통적 여성상을 환기하게 된 각 지방의 향교 유림들이 자기 지역의 유교적 미담의 주인공으로 열녀를 발견하고 그 서사 구성의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자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학원잡지』의 열녀 발굴과 발견을 통한 재구성의 과정에 지방 유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게 만든 또다른 원인은 '지방보고'란을 통해 올라온 열녀 기사에 대해 '본원' 주요 인사들이 보인 관심이었다. 『경학원잡지』의 본문에는 경학원의 핵심 인사들, 즉 대제학과 부제학을 비롯하여 사성과 강사 등이 쓴 논설, 번역, 전통적인 한시문 등이 실리곤 했다. 그 중에는 '지방보고'에 수록된 열녀 기사를 기반으로 경학원 핵심 인사가 재창작한 열녀 비문들이 있는데, 이들 기사들의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지방보고'의 열녀 기사를 기반으로 한 경학원 주요 인사의 '열녀 비문'**

| | 지방보고 란의 열녀 기사 (③-1, ④-1, ⑤-1) | | | 본문의 열녀 비문 (③-2, ④-2, ⑤-2) | | |
|---|---|---|---|---|---|---|
| | 수록 호 | 보고자 | 대상 | 수록 호 | 작자 | 제목 |
| ③ | 27호 (1926.12) | 함북 강사 신태악 | 함북 명천군 열녀 장씨 | 27호 (1926.12) | 사성 김완진 | 烈女申婦張孺人碑 |
| ④ | 28호 (1927.12) | 성진군 문묘직원 김종열 | 효열부 이지수 처 김씨 | 28호 (1927.12) | 사성 이대영 | 孝烈婦金氏碑 |
| ⑤ | 29호 (1928.12) | 성진군 문묘직원 김종열 | 이부 전씨 | 34호 (1932.3) | 경성부 강사 권순구 | 節婦全氏碑 |

원래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행장(行狀)'이나 '제문(祭文)', '전(傳)', '비문(碑文)'과 같은 한문산문 장르의 전통적인 창작 관행은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아는 주변 사람이 기초적인 사실 내용을 1차로 초록하고 이 초안을 유명 문장가에게 보내 좋은 글로 다듬어 받는 것이었다. 『경학원잡지』 본문의 산문장르 중에 '제문', '비문', '기'와 같은 글이 많은 이유 또한 경학원 본원의 인물들이 당시 주변에서 이러한 글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을 만한 당대의 주요 유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열녀를 보고하는 지방보고 중에서 바로 이러한 관행을 따라 경학원 본원에 초안을 보내며 정식으로 문장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본원의 주요 인사가 이에 화답하여 비문을 작성해준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지방보고 기사를 바탕으로 경학원 인사들에게 비문 작성 요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을 뽑아보면 이러하다.

> ③-1. 우리 군의 선비와 백성들이 공의로 의논하여 민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르러 한 목소리로 군에 표창을 내려달라고 청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대가 또한 달라져 정표할 길이 없으니 지금 우리 고을의 공론은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데 그 비문을 본원의 대가에게 요청하여 이로써 영원한 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실제 일을 수습하여 알리는 것이다.17)

> ③-2. 향리의 선비들이 여러 번 유사들에게 알리고 정표하여 포상하기를 원했으나 아직 얻지 못하자 함께 의논하여 돌에 그 기록을 새겨 영원히 알게 하도록 했다. …… 강사 신태악이 그 일을 자세히 갖추어 말하니 내가 그 첫머리에 오는 자리를 욕되이 맡게 되었다. 또 그 글을 얻지 못함을 거두어들여 이와 같이 서술하였다.18)

---

17) 至有本郡士民公議之不泯, 齊聲請褒累蒙郡題者, 已有年, 所時宜殊, 故旌表無路, 今一鄕衆議, 方營立石記行, 其碑文欲乞請于本院內大手, 以圖永遠之蹟. 玆以摭實報明, 云云. 『경학원잡지』 27호, 1926.12, 76쪽.

④-1. 인하여 인근의 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여 의논하기를 비석을 세워 그 업적을 기록하기로 했다. 특별히 몇 줄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받아 천백 사람들에게 보게 하여 그 감흥이 있게 하고자 하니 이를 얻으면 천만 다행일 것이다.19)

④-2. 관북 성진의 선비들이 장차 효열부 김씨의 실행을 비석을 세운 후, 문묘직원 김종열 군이 경학원에 비문을 청하며 알렸다. 얼마 후 신태악 강사가 내게 그 일을 말하고 청하기를, "이 사람을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록하겠습니까." 했다.20)

⑤-1. 유잠한 덕도 드러내지지 않으면 겉으로 알려지지 않고, 침대한 행실도 칭송함이 없으면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겉으로 알려지고 칭송함은 근자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일이다.21)

⑤-2. 하루는 경학원 동료인 사성 이석정이 관북 전씨 절부의 절행이 원에 보고된 것을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절부가 사는 군의 선비들이 절부를 위해 비석 세우기를 계획하면서 본원에 문장을 구하였으니, 청컨대 글을 지어주시오." 하였다. 나는 진실로 감당할 수 없으나 속으로 내 책에 보완할 것이 생겨 기쁘기도 했다. 이에 받아서 논하였다.22)

---

18) 鄕人士屢籲于有司, 願有以旌褒, 而迄未得也, 僉議刻石紀行, 俾垂諸永久. …… 申講士泰岳, 甫道其事甚悉, 以不佞忝在首善之地, 且徵其文辭不獲, 則叙之如此.『경학원잡지』27호, 1926.12, 9쪽.

19) 近因萬口一辭之公議, 欲立碑紀蹟, 特賜數行記實之語, 以興千百人之觀感, 千萬幸甚.『경학원잡지』28호, 1927.12, 80쪽.

20) 關北城津人士, 將以孝烈婦金氏實行, 勒碑垂後, 文廟直員金君鍾烈, 報于經學院請其文, 未幾申泰岳講士, 道其事, 申其請曰, 不記此人, 其誰記之.『경학원잡지』28호, 1927.12, 13쪽.

21) 伏以幽潛之德, 不遇闡發, 則無以表著, 沉滯之行, 不有稱誦, 則無以揄揚, 其闡發稱誦, 在近者之必先也.『경학원잡지』29호, 1928.12, 77쪽.

22) 一日院僚李石庭司成, 以關北全氏節婦之節行, 報院者, 示余而言曰, 節婦所居之郡, 人士謀爲節婦立碑, 而求文於本院, 請授簡焉. 余固不堪當, 然竊喜其有補於吾書者, 受而論次之.『경학원잡지』34호, 1926.12.3, 8쪽.

③-1은 함북강사인 신태악이 올린 지방보고의 끝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선비와 백성들의 공의'로 열녀의 행실을 군에 알려 '정표(旌表)'를 요청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시대가 달라져(所時宜殊)' 정표 받는 일이 어렵게 되자 공론이 '비석을 세워 기록하는 것(立石記行)'으로 바뀌었고 그 비문을 '본원의 대가(本院內大手)'에게 부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2에서는 사성인 김완진이 이에 응하여 비문을 지은 뒤 '강사가 부탁하여 글을 지었다'는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④-1은 성진군의 문묘직원 김종열이 올린 지방보고의 말미 부분이며, ④-2는 사성인 이대영이 쓴 비문의 일부이다. 지방의 문묘직원이 '특별히 몇 줄의 글을 얻을 것'을 간청하는 지방보고를 올리자 강사 신태악이 사성 이대영에게 이를 주선하여 비문을 써줄 것을 청하고 있다. ⑤의 경우는 성진군의 문묘직원 김종열이 올린 지방보고를 보고 경학원 사성인 이석정이 이 기사를 발견하여 경성부 강사인 권순구에게 글을 보여주고 비문을 지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세 경우의 경로를 종합하면 도의 강사, 혹은 지방 군의 문묘직원들이 자기 지역의 열녀를 지방소식으로 보고하면서 경학원 대가들의 글을 요청하고, 그 중 일부가 본원의 사성 및 경성부 강사와 같은 주요 경학원 인사들에게 발탁되어 문장으로 정제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 즉 위의 사례들은 지방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한 열녀 기사

23) 비문을 써주는 주요 인사로 등장하는 김완진, 이대영, 권순구의 이력 및 '사성(司成)'과 '강사(講士)' 직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학원의 '사성'은 대제학, 부제학의 다음 직책으로, 석전제의 제관 참여, 주요 강연 및 순회 시찰을 담당했고 『경학원잡지』의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실질적인 요직이었다. 김완진과 이대영은 1920~30년대 활동한 사성으로, 김완진은 도서기·군수를 거쳐 1918~39년까지 사성으로 재임했으며, 이대영은 본원의 직원으로 출발해 1921~36년까지 사성 재임, 1936년부터는 부제학까지 승진한 경학원의 핵심인물이었다. 경학원의 '강사'는 각 도에서 유교적 소양과 학식을 갖춘 인물을 학무국과 관할 경찰서 등의 검토를 거쳐 임명했는데 곽종석(경남), 박은식(평남), 송병순(충북)과 같은 민족주의 유림은 강사 지명을 수치로 여겨 활동을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 도의 유림을 대표하는 명예로운 지위로 생각하여 전국에 순회강연을 다니면서 일제의 지배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담당했다. 특히 경성부의 강사는 다른 지역의

에 대해 경학원 주요 인사들이 이를 다시 선별하여 재창작하는 구조로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4] 이러한 반응이 지방 유림들의 열녀 발굴을 다시 자극하고 격려하고 고무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열녀의 발견과 열녀 서사의 발굴은 이렇게 지방의 유림들과 경학원의 대표 유림들이 상호 관심과 반응을 자극하는 순환적인 회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지방 유림의 불안과 '열녀'라는 전통의 호출

이 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일제의 향교 관리 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 유림들의 존재 조건 및 지역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경학원잡지』 21호(1921.3)부터 28호까지 게재된 주요 기사 중 하나는 개정된 법령인 「향교재산관리규칙」과 「장의(掌議)에 관한 규정」을

---

강사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권순구 바로 직전의 경성부 강사였던 정만조가 대제학으로 임명된 사실은 그 위상이 다른 지역의 강사와 같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학원의 주요 직책과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상세히 밝혀져 있다. 정욱재(2007), 앞의 논문, 221-248쪽. _____,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이대영(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호, 고려사학회, 2014, 249-274쪽.

24) 지방보고와의 연계 없이 경학원 주요 인사가 독자적으로 쓴 열녀 비문도 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까지 6편이 게재되었으니, 『경학원잡지』 전호에 걸친 15편의 비문 중에서 열녀 비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편, 즉 60%에 달한다. 본문에 유명 인사의 이름으로 자주 노출된 열녀 비문의 존재는 다시 각 지역 유림들의 열녀 소재 발굴을 부추겼을 것이다. 『경학원잡지』에 실린 전체 16편의 비문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열녀 비문은 밑줄 친 9편으로 1926년부터 1935년까지 발견된다. 成岐運, 彝峰金公遺墟碑文(24호), 金完鎭, 烈女申婦張孺人碑(27호), 李大榮, 孝烈婦金氏碑文(28호), 金完鎭, 金孺人烈行紀蹟碑文(29호), 沈璿澤, 金夫人烈行碑(32호), 沈璿澤, 士人魏元良事績碑(32호), 成樂賢, 林孺人孝烈碑文(33호), 金完鎭, 司直金公碑銘(33호), 魏大源, 陽川朴公遺墟碑文(33호), 權純九, 節婦全氏碑(34호), 沈璿澤, 烈女白氏碑銘(34호), 鄭萬朝, 密陽朴氏孝烈紀蹟碑銘(36호), 魏大源, 東萊鄭氏孝行實績碑文(36호), 烈婦崔氏紀行碑銘(37호), 高橋敏, 平壤文廟移轉紀蹟碑文(40호).

소개하는 기사였다.[25] 매호 약 20~30여 면의 긴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법령을 게재하고 있는 이 기사들의 핵심은 향교의 재산을 도지사, 군수가 관리하고, 군 단위 향교를 통합적으로 재편하며, 향교의 기존 인력 구성을 폐지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인 '장의'를 둔다는 것이었다.

⑥ 今回鄕校財産管理規程을개정ᄒᆞ야文廟의祭祀를尊重히ᄒᆞ며更히汎히地方敎化振興의資源에供케ᄒᆞᆯ途를開ᄒᆞᆫ바도亦敍上의趣旨에不外ᄒᆞ니地方各官은極히此의趣旨를體ᄒᆞ야徒히祭儀의形式에泥ᄒᆞ며論議의末節에拘치勿ᄒᆞ고儒敎의精神을發揚ᄒᆞ야時代의趨勢에鑑ᄒᆞ야適切有效히敎化의施設을爲ᄒᆞ야써人心을啓發ᄒᆞ야國家의進運에貢獻ᄒᆞᄂᆞᆫ바이有키를期ᄒᆞᆯ지어다[26]

⑦ 鄕校財産冠履規則 第一條 鄕校財産은府尹,郡守,島司此를管理홈 第二條 鄕校財産을賣却,讓與,交換又ᄂᆞᆫ擔保로供ᄒᆞ고져ᄒᆞᄂᆞᆫ時ᄂᆞᆫ朝鮮總督의認可를受홈이可홈[27]

위 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교재산관리규정」의 개정을 알리는 '총독부훈령27호'의 표면적 명분은 향교의 재산을 '문묘의 제사를 존중'하기 위해 '지방교화 사업을 진흥할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질적인 규정 제정의 목적은 ⑦에서 드러나는 대로 향교 재산의 관리를 '부윤, 군수 도지사'가 담당하고 향교 재산을 '매각, 양여, 교환, 담보'할 때에는

25) 『경학원잡지』에서 지방 향교 관련 법령을 소개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訓令第二十七號」, 「鄕校財産管理規程」, 「掌議에關한規程」, 21호, 1921.3; 「掌議에關한規程」, 「鄕校財産管理規程施行細則」, 22호, 1922.3; 「鄕校財産管理規程施行細則」, 23호, 1922.12; 「掌議에關한規程」, 「鄕校財産管理規程施行細則」, 「地方文廟直員에關한府令」, 24호, 1923.12; 「掌議에關한規程」, 25호, 1924.12 ; 「掌議에關한規程」, 「鄕校財産管理規程施行細則」, 28호, 1927.12; 「鄕校財産收入表」, 32호, 1930.12.

26) 齋藤實, 「朝鮮總督府訓令第二十七號」, 『경학원잡지』 21호, 1921.3, 1쪽.

27) 『경학원잡지』 21호, 1921.3, 33쪽.

'총독의 인가'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원래 향교의 재산은 조정에서 받은 관급학전과 지방민 및 지방 유림들의 갹출로 형성된 것으로 그 지역 주민과 유림들의 공공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력한 지역 인사들을 교임(校任)[28]으로 선출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29] 즉 「향교재산관리규정」은 그렇게 원래부터 그 지역의 문묘 제사와 교육 사업 등 지방의 문화적, 교육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던 향교 재산을 총독부가 굳이 '지방교화 사업의 진흥'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실질적으로 몰수, 박탈한 조치였다.

이러한 향교의 재산 운영권의 통제와 함께, 향교 조직의 강제적인 재편과 통합도 진행되었다. 총독부는 한 개 군에서 한 개의 문묘 향사만을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지방의 향교들을 통폐합하였고, 지방 문묘직원과 장의에 관한 규정을 통해 향교 운영 인력인 교임 규모를 장의 중심으로 축소했으며 그 임명권 또한 군수 및 도장관에게 넘겨주었다.[30] 이러한 향교 재산 관리권의 박탈, 교임 조직의 축소, 장의의 임명권과 권한 제한 등

---

28) 조선시대 향교의 인적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지방의 유생들 중에서 스승이 될 만한 이들을 **'校任'**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서열에 따라 **'都有司-掌議-有司'**로 구분되었다. 도유사는 향교를 대표하여 교임을 총괄하고 향교의 모든 일을 주관했고, 장의는 향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관리자였으며, 유사는 문묘를 지키고 제향에 필요한 물건을 관리하며 서책을 보관하는 등 운영 실무를 보좌했다.'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153-156쪽.

29) 식민지 시대 향교 재산 관리에 대한 일제의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81-112쪽. 일제는 이러한 향교 재산의 운영권 박탈을 통해 향교 소유의 토지를 '수로사업, 제방부지, 철도 부지' 등의 필요에 무상으로 강제 수용하는 특수를 누렸다.

30) 일제 시대 직원과 장의 등 향교 내 조직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명우, 「일제강점기 향교 직원과 장의」, 『중앙사론』 25, 한국중앙사학회, 2007, 127-121쪽; 김정인(2005), 위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전남에서 능주군과 동복군이 폐군되어 화순군에 통합되자 두 지역의 향교 유림들도 화순 향교에서 문묘 향사를 지내야 했다(90쪽)." 이러한 행정구역의 축소에 따른 지역 향교의 통폐합은 지역 유림들의 입지와 권한의 축소로 직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 같이, 지방 유림들의 근거지인 향교 조직을 근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총독부의 제반 조치는 향촌 지역의 유림들의 존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정작 향촌의 유교 지식인들의 의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응을 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일제의 핵심 권력이 아니었다. 『경학원잡지』 33호(1931.12)에는 「성토전말(聲討顚末)」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성토결의문(聲討決議文)」, 「건의서(建議書)」, 「조선총독완진정서(朝鮮總督宛陳情書)」, 「경학원완권고서(經學院宛勸告書)」, 「각지성토문일람(各地聲討文一覽)」의 각종 결의문과 진정서, 성토문이 10여 면에 걸쳐 게재되었는데, 여기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은 잡지 『신민(新民)』에 성현인 공자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쓴 필자와 이를 허용한 잡지의 주간이었다.

> ⑧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科 囑託 李覺鍾의 主幹하난 雜誌 新民에 孔夫子를 侮辱한 記事가 左와 如함 「新民」 第六十四號 昭和六年 一月一日 發行 「新年號」 新法律漫評(摘拔) 論者 李仁 一. 婿養子制度 形式만 崇奉하고 內容과 實質의 空虛됨을 깨닷지 못하고 孔腐子(孔子)의 殺人的 餘毒임은 다 말할 것도 업고 …… 按컨대 李仁의 說은 專혀 侮辱하기 爲하야 한 侮辱으로서 學術과 理論이 共히 提할 바이 無하니 …… 筆者인 李覺鍾은 多年總督府에 奉職하야 信任을 得한 者이오 現의 內務局의 囑託으로서 社會指導의 責任을 有하고 全鮮鄕校財産을 監督하난 部에서 敎化事業의 指導監督의 務에 從事하고 잇난 者이오 言論機關인 新民社의 主幹으로서 又난 監督官廳의 現職者로서 鄕校財産管理者의게 結託하야 鄕校財産으로써 其雜誌를 購케 하야 此를 直員掌議等의게 讀케하고 잇난 者이다 然ᄒᆞ면 鄕校儒林은 其社의 顧客임에도 不拘하고 其敎祖에 對한 侮辱을 恣行하난 것과 如함은 營業者의 商策으로도 矛盾된 것이오 職務上의 義務로도 違背가 되난 것이다 …… 그러나 一般憾情의 矢난 李仁보다도 寧히 李覺鍾의게 集中한 것과 如하니 何오 하면 李仁은 責할 價値도 無한 자이어니와 李覺鍾

은 本府에의 有職有責者로서 爲치 못할 行爲를 爲한 까닭이다[31]

문제의 발단은 이인(李仁)이라는 일본 유학파 출신 변호사가 잡지 『신민』에 조선의 혼속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쓴 것이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의 혼인 폐습의 원인으로 공자를 지적했는데, 기사의 내용이나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유림의 심기를 자극한 것은 '공부자(孔夫子)'를 의도적으로 오기한 '썩은 공자(孔腐子)'라는 표현과, '살인적여독(殺人的餘毒)'과 같은 유의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유림들의 '감정의 시(矢)가 집중'된 대상은 모욕적 언사의 당사자인 이인이 아니라 이 기사를 싣게 한 잡지 『신민』의 주간인 이각종(李覺鍾)이었다. 그는 '전 조선의 향교재산을 감독'하는 '총독부의 내무부 촉탁(囑託)'으로서, '다년간 총독부에 봉직한 자'이자 '사회지도의 책임이 있는 자'이며 '교화사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신민』은 전신인 잡지 『유도(儒道)』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주요 독자층 중 하나가 바로 지방 향교 중심의 유림들이었다.[32] 따라서 향교 직원들을 통해 향교 재산으로 구입한 유림 대상의 잡지에서 공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여과 없이 실리도록 방기한 이각종의 책임은 '영업자(營業者)의 모순된 상술(商策)'이자 '직무상(職務上)의 의무 위배'로 엄중하게 추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31) 「聲討顚末」, 『경학원잡지』 33호, 1931.12, 26-28쪽.

32) 다음 논문은 잡지 『신민』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띤 『개벽』과 반대로 총독부의 준기관지 성격을 가진 매체였으며, 동시에 『개벽』에 필적할 만한 지방 장악력을 가진 유일한 잡지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지방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은 『신민』이 친일적 유교단체인 유도연합회 발행 잡지였던 『儒道』를 인수하여 만든 잡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주요 독자로 '지방 유림세력'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벽』이 경성의 민간 지식인을 주 대상으로 삼고 전 조선으로의 전파를 시도하는 것이었다면 『신민』은 지방의 관료적 지식인을 대상으로 삼아 먼저 지방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후 중앙으로 진출하는 전략이었다.', 이경돈,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관제 매체」,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 288-289쪽.

그런데 이러한 성토와 질타의 언술들 속에서 이각종을 지시할 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점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자로서의 위치'이다. '다년 총독부 봉직으로 신임을 득(得)한 자', '사회지도의 책임과 교화사업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감독관청(監督官廳)의 현직자(現職者)', '본부(本部)의 유직유책자(有職有責者)'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지목된 이각종의 위치는 향교 유림들이 그를 통해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결여의 지점, 즉 사회적 책임자이자 지도층으로서의 위상을 강하게 상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사건은 일제 시대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 세력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과 주요한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소외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지방 유림이 이각종과 같은 친일 협력적인 근대 지식인을 자신의 경쟁자이자 적수로 여기면서, 막상 실제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착취해가는 총독부의 지배권력에는 더 예속되고 마는 식민지적 심성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⑨ 同五月五日 三水郡 文廟直員 李鍾貞 文廟春釋奠을 擧行하고 該狀況及外他經過諸般情況을 報告하얏는대 左와 如함 …… 昭和六年五月二日午前十時에 李仁李覺鍾侮辱事件으로 儒林代表會를 明倫堂에 開催하고 前郡守 李鍾璿 司會下에서 仁覺兩漢聲討文을 全鮮各郡鄕校其他儒林團體에 印刷發送하기로 決議한바 聲討文 四百五十枚를 昭和六年十一月末일까지 各處에 發送하얏고 儒道鼓動과 士氣振興을 爲하야 鄕校主催로 白戰詩會를 十月五日六日 二日間當鄕校에 開催하고 詩, 賦, 律, 疑心, 大小古風, 六題下에서 上試 郡守 柳圭政 副試 前長津郡守 李鍾璿, 三試 儒生 金啓鍾氏의 考試로 合格者 百十三名을 先發하얏고 會集人士는 五百二十七人에 達하엿스며 六日午後六時에 受賞者招待宴을 開行하야 一般儒林의 好感을 博함[33]

33) 「文廟釋奠狀況」, 『경학원잡지』 35호, 1932.12, 26-28쪽.

위 예문은 이인, 이각종의 『신민』 사태 이후 1년 뒤인 『경학원잡지』 33호(1931.12)의 지방보고 기사 일부이다. 이 기사는 '삼수군(三水郡)'의 문묘직원인 이종정이 자기 군에서의 춘기 석전제 상황을 보고하면서 뒷부분에 '이인, 이각종 모욕사건'으로 인한 '유림대표회'를 열고 '인각양한성토문(仁覺兩漢聲討文)' 450매를 전조선 각 군의 향교와 유림단체에 발송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유교의 도를 고동(儒道鼓動)'시키고 '선비들의 사기를 진흥(士氣振興)'하기 위한 '백전시회(白戰詩會)'를 개최했음을 알리고 있다. 지방 유림들이 자신들의 열악하고 소외된 지위와 착취당하는 식민지민으로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정체성의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근거지는 다시금 '유교의 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방 유림들이 그들의 현재적 필요에 의해 '열녀'라는 유교적 여성 표상을 호출해내고 '지방보고'를 통해 열녀 기사를 꾸준히 재생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열녀 기사에서는 '정표와 표창, 포상'을 간절히 요구하는 표현을 유독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시 '유도(儒道)의 고동'과 '바닥에 떨어진 선비들의 사기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지방 유림의 정체성 불안과 위기의식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4]

---

34) 『경학원잡지』의 열녀 기사에서 비석이나 정표, 표창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20여 개 가량이다. 몇 개의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아, 비록 이러한 효열이 있으나 드러내 천거할 곳이 없고 그 모습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애석하고 안타깝도다. …… 훗날의 군자가 이 비천한 말을 버리고 그 실제 행실을 취하여 후일을 기다려 정표함을 얻으면 어찌 권선하는 풍교의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嗚呼雖有如此之孝烈, 無處表薦, 狀未依籲焉, 痛哉惜哉. …… 取其實行, 第待後日, 得以旌表, 則豈非勸善樹化之道乎.**', 23호. ; '재회에서 사발통문을 각 군의 방영에 돌려 비석 세우고 기념을 할 것을 논의했다. 재회를 할 때 참석 인사가 백여 명이었으며 각 사람이 낸 의연금이 50원이었다. **鄙等齊會, 發文輪通, 于各郡方營, 立碑紀行, 而其齊會之時, 參席人士, 爲百餘員, 各人義捐金, 爲五十餘圓.**', 26호⑨ ; '마침내 이 일이 민몰된다면 장차 세상을 감흥시킬 것도 없고 세교를 만회할 수도 없으니, 장차 비석과 정려각을 세워 탁월한 행실을 표창해야 한다. **竟使泯沒, 則將無以感興斯世, 挽回世敎, 故將竪碑建閣, 表厥卓行.**', 26호⑱ ; '여러 번 유림의 추천에 올랐으나 조

## 4. 내부 식민지로서의 여성의 몸- 착취와 학대의 시선

이 장에서는 지방의 향촌 지식인들이 생산한 열녀 기사들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적인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열녀 서사는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상층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지만,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라는 기사란을 통해 식민지의 지방 유림에 의해 재현된 열녀 표상은 어떤 특징적인 국면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재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다.

'지방보고' 열녀 기사에서 이전의 열녀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서술의 강조 지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여성의 몸과 간호 노동에 대한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묘사이다. 손가락을 베거나 허벅지를 잘라 위급한 순간에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단지(斷指), 할고(割股) 이야기는 기존의 조선시대 열녀전에서도 발견되던 내용이지만 '지방보고' 열녀 기사에서는 단지와 할고의 소재를 표현 강도 면에서 강화하고 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35]

---

정의 표창을 받지 못했다. 사림의 논의가 다시 일어나 장차 비석을 세우니 이로써 그 행실을 표하고자 한다. **累登儒薦, 未蒙天褒, 士論更發將竪碑, 以表其行.**', 27호 ⑦ ; '유림이 그 절개를 표창하여 의연금을 내 비석을 세우고 정표를 대신하고자 했다. **儒林彰其節, 而出義立碑, 以代表旌.**', 28호 ⑦ ; '군내 각 면장이 연서하여 관에 표창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고, 그 외에도 구장, 유지자가 여러 번 문장을 펴 보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말 정치가 해이하여 정려를 받지 못하였으니, 명치 43년 절부가 은사금을 받음으로써 그 행실이 드러났다. **郡內各面長聯署, 籲官請褒之外, 或區長, 或有志, 連章申聞者, 亦不止一再, 然時當韓末政弛, 未克見其施旌, 明治四十三年, 以節婦受恩賞金, 以表其行焉.**', 29호⑤ ; '옛 책을 통해 보면 의당 작설지전을 받아야 하나 시대의 제도에 구애되어 받지 못하였다. 여러 선비들이 공의하여 장차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후인에게 알리고자 하면서 내게 글을 부탁했다. **揆諸舊典, 宜蒙綽楔之施, 而拘於時制, 迄未得焉, 以多士公議 將竪碑其實, 以詔候人, 屬余引之.**', 33호① ; '위에서 정표를 내려주지 않고 아래에서 널리 드러낼 방법도 없지만 탁이한 행적은 인멸시킬 수 없으니 어찌 분한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然挽近上無表閭之旌, 下無闡揚之方, 使此卓異之行, 湮沒無聞於世, 豈不齎鬱乎.**' 38호⑥

35) 단지 소재가 나타나는 기사는 '지방보고' 총 120여 개의 열녀 기사 중 40개로, 세

⑩ 남편이 중병에 걸린 지 팔구 개월 쯤에 증세가 점점 나빠져 위극하게 되자 김씨가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넣으니 회생하였다. 그 뒤 또 다시 죽을 위기가 왔을 때 김씨는 손가락을 또 칼로 잘랐는데 마디가 영영 끊어져 버렸다. 그 피를 입에 따라 넣으니 잠시 후 남편이 피를 토하며 회생하여 완쾌되었다.36)

⑪ 하루는 정윤의 병이 마지막에 이르렀다. 하씨가 칼로 두 개의 손가락을 잘라 뚝뚝 떨어지는 피를 남편의 입에 따라 부었는데 손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식구들은 이미 정윤의 옷을 들고 고복을 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하씨는 고통이 심하여 소리내어 곡을 하지 못하고 다만 피를 토할 뿐이었다.37)

⑩의 인용문은 남편의 병이 위독할 때 단지를 해서 살려낸 뒤 또 다시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두 번째 단지를 하고 '손가락 마디가 영영 절단(指節永絶)' 되었다는 내용이다. ⑪은 이제 막 숨을 거두려는 남편에게 손가락 두 개를 잘라 피를 흘려넣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血淋漓)', '손가락이 땅에 떨어지며(指則隨地)', '극심한 통증으로 피를 토할 정도(痛甚, 但嘔血)'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보고' 열녀 기사의 단지 소재는 그 표현의 차원이 한층 강화되고 단지를 하는 횟수가 강조된다. 손을 베어 피를 내서 그것을 흘려 넣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아예 마디가 영영 잘려 나가고 잘린 손가락이 땅에 떨어졌다는 식의 잔혹하고 노골적인 표현, 두세 번에 걸쳐 두세 개의 손가락을 단지했다거나 단지를 했지만 또 다시 할고를 했다는 식의 반복적인 신체 훼손의 강조 서술은 결국 그 행

편 중 한 편에서는 단지 일화가 나타날 만큼 그 비율이 높다.

36) 又嬰重病, 至八九朔, 症漸添劇, 氏自斷指注血, 其夫回生而已, 又復殞命, 氏又以其刀再斷其指, 指節永絶, 血灌其口, 須臾夫吐其血而回生, 至於完蘇. 25호④, 1924.12.

37) 一日禎胤病至於末如, 河氏以刀斫二指, 血淋漓灌口, 指則隨地, 而家人已以禎胤衣升屋矣, 河氏痛甚, 不能出聲哭, 但嘔血. 31호①, 1930.8.

위에 강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서술 주체의 시선을 보여준다.[38] 단지와 할고의 횟수 강조 및 표현 강도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열녀 기사를 보고 하던 지방 유림들의 의식 속에 여성의 몸이 훼손되는 정도가 곧 열행의 강도로 직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만큼 여성의 몸이 이들에게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읽게 해준다.

또한 '지방보고' 열녀 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은 여성의 과도한 희생적 행위, 또는 비인간적인 역겨움을 감내해야 하는 학대적인 간호 소재이다. 한여름에 병자가 먹던 미음과 탕약 찌꺼기를 먹고 심지어는 환자가 삼켰다 토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않고 직접 먹었다거나, 천 개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모으기 위해 수개월 동안 구걸하며 약을 만들어 올렸다거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조차 못하는 병자를 수십 년 간병하고, 부스럼이나 악취 나는 종기를 직접 빨아서 낫게 한 내용 등은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 ⑫ 때는 한여름인데 미음을 남기고 흘린 것이나 약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가 혹 맛이 변한 것이나 혹 삼켰다 토한 것이라도 부인은 모두 거두어 다 마셨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병자가 먹다 남긴 것을 더럽다고 버리면 이는 남편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39]

---

38) 단지의 소재를 횟수와 표현 면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사는 11건으로 단지 기사의 3분의 1이 넘는 비율을 보인다. 단지 후 할고(25호③), 단지 2회로 손가락 마디가 영영 잘림(25호④), 단지 2회(26호②), 손가락 세 개를 단지(26호⑤), 단지 2회 후 할고(26호⑪), 단지 2회(28호⑥), 단지 2회(29호⑤), 손가락이 땅에 떨어지고 피를 토함(31호①), 단지 후 할고(31호②), 단지 후 할고(31호⑤), 할고 후 단지(47호②).

39) **是則盛暑, 米飮之餘瀝, 藥料之餘滓, 或爲變味, 或經呑吐, 夫人盡取卒飮, 他人問其故曰, 病人之餕餘, 以汚見棄, 則是非事君子之道也.** 26호⑨(1925.12) ; '병자가 먹다가 남기거나 흘린 것을 반드시 거두어 다 마시자 사람들이 간혹 말리기도 했다. 그러면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을 섬기는 도리로 병자가 먹다 남긴 것을 어찌 버려서 개돼지의 먹이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듣는 자들이 감동하여 깨달았다. **其所食餘瀝, 必取飮之, 人或止之, 輒曰, 事君子之道, 病人之餕餘, 豈可棄爲狗彘食乎, 聽者感悟.**' 28호④, 1927.12.

⑬ 남편이 풍증으로 앓은 지 십오 년간 의약에 지극 정성을 다하였다. 어느 날 의원이 말하기를, '천 개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두발을 모아 태운 기름을 복용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조씨는 직접 거지 행색을 하고 구걸을 해 갖은 고생을 하며 그것을 구해 칠 개월 후에 돌아와 약을 올렸으나 효과를 보진 못하였다.40)

⑭ 남편의 병은 사지가 모두 수축되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앉으면 서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마땅히 그 처가 하면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입음은 물론 씻기고 대소변 보는 일까지 일일이 스스로 맡아 하고 남을 대신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십여 년간 조금도 화내는 빛을 보이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듯 신명을 공경하듯 하였다. 지금 나이가 72세이나 더욱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다.41)

---

40) 夫患風症, 彌延十五年, 致誠醫藥, 醫云千性頭髮, 燒油服之最效, 趙氏窮作丐乞樣, 艱辛旁求, 七個月後還供, 亦未見效. 26호⑨, 1925.12.

41) 夫有貞疾, 四肢幷縮臥不起, 坐不立動止, 食飮必須其妻, 而雖盥櫛衣帶, 洗垢糞溺之擧, 一一自擔, 而不使人代, 于今五十餘年, 少不見艷遽之色, 保之如嬰兒, 敬之如神明, 年今七十有二, 而愈勤不懈. 29호⑧, 1928.12; 남편의 양 손이 이미 굽어져서 새벽에 일어나 세숫물을 받아 씻은 뒤 의관을 착용하기를 부인이 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숟가락을 들어 대신했으며 측간에 가면 따라가 옷의 띠를 풀어주었다. 일동일정에 노고를 꺼리지 않으며 반드시 남편 뜻에 순종했으니 이렇게 하기를 이십여 년이었다. 夫之兩手已禿, 故辰起而取盥洗, 而後必着冠, 至於飮食之際, 取匙代勞, 或如厠則, 隨而往之, 解結衣帶, 凡一動一靜, 不憚勞苦, 必順夫志, 如是者二十餘年也. 27호⑫, 1926.12; 시모인 최부인은 나이가 칠순인데 우연히 눈병을 얻어 팔구년 간 심해지더니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앉고 눕기를 남에게 의지해야 하니 곁에서 보살피고 간호했으며 숟가락을 들어 먹이고 옷을 빨아 봉양하며 밤과 낮을 이어가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尊姑崔婦人, 年迫七旬, 偶得眼患, 八九年沈痼, 不能視物, 坐臥須人, 在傍調護, 擧匙而食之, 澣衣而御之, 晝而繼夜, 少無懈怠. 26호⑧(1925.12) ; 남편이 오십 넘어 불행히 중풍에 걸렸는데 온몸을 벗고 옷을 걸치지 못한 채 누워 일어나지 못한 지 십팔 년이니, 음식과 대소변을 모두 처자의 힘에 의지했다. …… 둔부에 악창이 생겼으나 병자가 모르게 마치 아픈 곳이 없게 하며 용모와 말을 공순하게 하니 남편이 병을 잊고 지냈다. 其君子五十以後, 不幸有風疾, 全身裸裎, 不近衣絮, 臥而不起者, 十有八年之久, 而飮食賴妻子之手, 便溺恃妻子之力 …… 當臀處穿而成瘡, 不令病人知, 若無痛樣, 貌順言恭, 使其夫忘其病.', 18호②, 1918.9.

⑮ 시부인 진수가 실명한 후 울화로 병이 생기고 왼손에 종기가 났다. 닿는 곳마다 썩는 냄새가 나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았으나 최씨만 홀로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시면서 직접 종기를 빨아냈다. 그렇게 오래 하자 종기 뿌리가 그 해 말 거의 나았으니 이는 변을 맛보는 것보다 열 배는 족히 더 어려운 일이다.42)

단지, 할고 소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여성 몸의 훼손 정도에 집착함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여성의 몸을 인식하는 시선을 보였던 앞의 예문들과 달리, 위 인용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의 과잉 희생을 종용하는 가학적인 시선이다. 병자가 먹다 남긴 것이나 토한 것은 물론 한여름에 상한 음식과 약 찌꺼기를 먹는 것을 '군자를 섬기는 도리'라고 하고, 비상식적인 의약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구걸을 하거나 수십 년째 거동 못하는 병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수발하는 간병 노동을 '순종'으로 의미화하는 시선에 담겨 있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노동에 대한 학대적인 인식인 것이다.

여성의 몸과 노동에 대한 이러한 착취와 학대의 시선은 '지방보고' 열녀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시선의 근저에는 열녀 기사의 생산 주체인 지방 유림들의 식민지 전통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불안과 그로 인한 식민성의 투사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즉 『경학원잡지』 '지방보고' 열녀 기사는 식민화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향촌 지식인들이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열녀라는 유교 표상의 윤리적 우월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인 동시에, 식민화된 자기 위치를 투사할 수 있는 내부 식민지로 발견한 여

42) **其舅珍秀失明之後, 鬱火生疾, 左手生腫, 臭腐所觸, 人皆掩鼻, 而崔氏獨侍側不離, 躬自吮之, 積久瘡根, 歲餘乃瘳, 比之嘗糞十倍, 其難足矣.** 11호(1916.6) ; 이와 비슷한 예를 보여주는 기사들을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그 남편이 등에 종기가 났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부인이 그 종기를 빨아서 결국 완전히 낫게 했다. **其夫以背瘡, 百藥無效, 氏自吮其疽, 乃得完蘇.**' 25호④, 1924.12; '시부의 병에 변을 맛보고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 **舅病嘗糞, 而不使人知**', 18호②, 1918.9.

성의 몸에 대한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장인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식민지 시기 각 지역의 향교와 문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방 유림들이 생산한『경학원잡지』소재 '지방보고'의 열녀 기사를 통해 이들 식민지 유림들에게 '열녀'라는 유교적 표상이 어떤 맥락에서 소환되었는지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열녀'라는 여성 재현은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왔지만 그러한 여성 형상의 재현이 식민지 근대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지방의 향촌 유림이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총독부의 기관지의 한 기사란에서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국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열녀 기사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보고'라는 기사란의 성격, 경학원 본원과 지방 향교와의 관계, 지방보고 기사란에서 열녀라는 여성 형상이 발견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정 시점 경학원 본원의 주요 인사가 '열녀'를 언급한 바로 다음 호부터 '지방'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열녀 기사는 지방 유림들 사이에서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거쳐 차츰 활성화되었으며, 지방 유림과 본원의 주요 인사들은 열녀 기사의 발굴과 재창작을 상호 자극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지방보고 열녀 기사의 실제 생산층인 식민지 시대의 지방 유림들이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속에 있었는지를 주목하였다. 이들은 향교 재산의 관리권을 박탈하고 향교 조직을 약화시킴으로써 유림을 통제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향교 관리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으며, 동시에 식민지 근대 지식인의 존재와 영향력 증대로 인해 종래의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지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 유림들이 총독부에 의해 관리되고 착취당하는 식민

지민으로서의 현실을 외면하고 열악해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존재의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는 '유교의 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지방보고' 란의 '열녀' 재현은 이러한 식민지 시대 지방 유림이 식민화되고 주변화된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재소환한 유교적 표상이라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들 기사에서 특히 여성의 몸과 노동이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학대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역시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생산층이었던 지방 유림들이 자신들의 식민성을 투사한 내부 식민지로 여성의 몸을 발견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 참고문헌


1. 자료

『경학원잡지』, 1-33호, 국립중앙도서관.

_____, 34-36호, 38-40호, 42호, 44-48호, 국회도서관.

2. 단행본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153-156쪽.

이혜순, 「열녀전의 입전의식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63-183쪽.

나카무라 슌사쿠, 『에도 유교와 근대의 지』, 김선희 역, 선인, 2010, 91쪽.

3. 논문

강성숙, 「19세기 효열 담론 일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55-95쪽.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187-211쪽.
김남이,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 대동한문학회, 2003, 291-318쪽.
김명우, 「일제강점기 향교 직원과 장의」, 『중앙사론』 25, 한국중앙사학회, 2007, 127-172쪽.
김미수, 「일제강점기 『經學院雜誌』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1-61쪽.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81-112쪽.
류미나, 「식민지 권력에의 협력과 좌절-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157-191쪽.
_____,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제17집 제1호, 교육사학회, 2007, 53-77쪽.
_____, 「일본 '국민도덕론'의 유입과 재생산-1910~1920년대 경학원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2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63-85쪽.
_____, 「19세기말~20세기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집, 동양사학회, 2010, 127-158쪽.
이경돈,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관제 매체」,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 275-311쪽.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87-122쪽.
정세현, 「『經學院雜誌』를 통해 본 呂圭亨의 현실 대응 양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1-71쪽.
정욱재,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사성과 강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21-248쪽.

_____, 「한말 일제하 유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12쪽.
_____,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이대영(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호, 고려사학회, 2014, 249-274쪽.
홍인숙, 「17세기 열녀전 연구」, 『한국고전연구』 7, 2001, 95-117쪽.
_____, 「열녀 담론의 새로운 독해- 성과 계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85-118쪽.
_____, 「일제 식민지 시대 열녀 담론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64집, 한국한문학회, 2016, 473-506쪽.

##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virtuous woman in the colonial era
: Focusing on articles about virtuous woman in the 'local reports' column of 『the Journal of Kyeonghakwon(經學院雜誌)』

Hong, In-Sook

This pap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virtuous woman published in an article column called 'local reports' of 『the Journal of Kyeonghakwon』 and the local Confucians in the colonial era. For this, the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 column called 'local report' by connecting them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Kyeonghakwon and local Hyanggyo (鄕校, Confucian school). It also highlighted the process that female figures called virtuous women are found and reproduced by the local Confucians through the local reports column.

The articles about virtuous women in the local reports column began to appear from the next issue right after an important person of Kyeonghakwon mentioned 'them'. The point that similar contents frequently appeared in the articles about virtuous at the initiatory stage indicates the process that the local Confucians who produced articles of the local reports imitated and learned them. The paper examined the point that the local Confucians and important people of Kyeonghakwon created the cyclical production structure as they stimulated one another by finding and recreating the articles about virtuous women.

And the paper took note of the local Confucian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lonial era. They were much 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policy to weaken Hyanggyo and at the same time, were in fear of their position as the leadership of society that were weakened by competitive structures with modern intellectuals. 'Tao of Confucianism' was the only basis that makes them disregard their reality as the citizens of the colony and recover their social position which got to be low under those circumstances.

Eventually, the representation of 'virtuous women' in the 'local reports' column is the symbol of Confucianism that the local Confuscians in the colonial era recalled to relieve anxiety about self identity as the existence was colonized and marginalized. Among these articles, the women's bodies and labor that are especially expressed from the viewpoint of exploitation and abuse are proof that the local Confucians looked at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l colony.

Key words : virtuous woman, colony, Kyeonghakwon(經學院), 『The Journal of Kyeonghakwon(經學院雜誌)』, 'local reports' column, Confucians, Hyanggyo (鄕校, Confucian school)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